열왕기하 5장 20 ~ 27절

7과 게하시의 탐심

나아만은 문둥병이 낫자 너무나 기뻤습니다.
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많은 선물을 주려고 했습니다.
그러나 엘리사는 결코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.
그런데 이것을 본 게하시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습니다.
"나아만의 뒤를 따라가서 무엇이든지 얻어내야겠다."

나아만은 멀리서 달려오는 게하시를 보았습니다.

"무슨 일이십니까?"

"예. 엘리사님이 당신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달라고 하셨습니다."

나아만은 게하시가 거짓말을 하는 줄도 모르고 게하시에게 은과 옷을 주었습니다.

게하시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
나아만에게서 얻어 온 재물들을 자기 집에 감췄습니다.
그러고는 엘리사에게 갔습니다.

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었습니다.

"네가 어디서 오느냐?"

"저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."

"욕심을 낸 것도 모자라 나를 속이려 하느냐? 이제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에게 들어서 너의 자손에게까지 이어질 것이다."

게하시는 문둥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었습니다.

교제해요

1. 게하시는 하나님께 어떤 벌을 받았나요? ( )

① 문둥병자가 되었다.

② 눈이 멀었다.

③ 죽었다.

2. 다음 두 가지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할까요?

엄마 화장대 위에 있는 만 원을 보고 갖고 싶어서
주머니에 넣었어요.
그런데 엄마가 "만 원 본 적 없니?" 하고 물어보세요.

.....

.....

.....

친구가 정말 멋진 장난감을 가지고 있어요.
나도 꼭 갖고 싶어요.
어떻게 해서든지 가지고 싶어요.

.....

.....

.....

암송

암송을 따라 써요.

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
사람의 생명이
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
아니하니라
(누가복음 12장 15절)

기도하는 어린이

하나님!

저는 가지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.

제가 욕심부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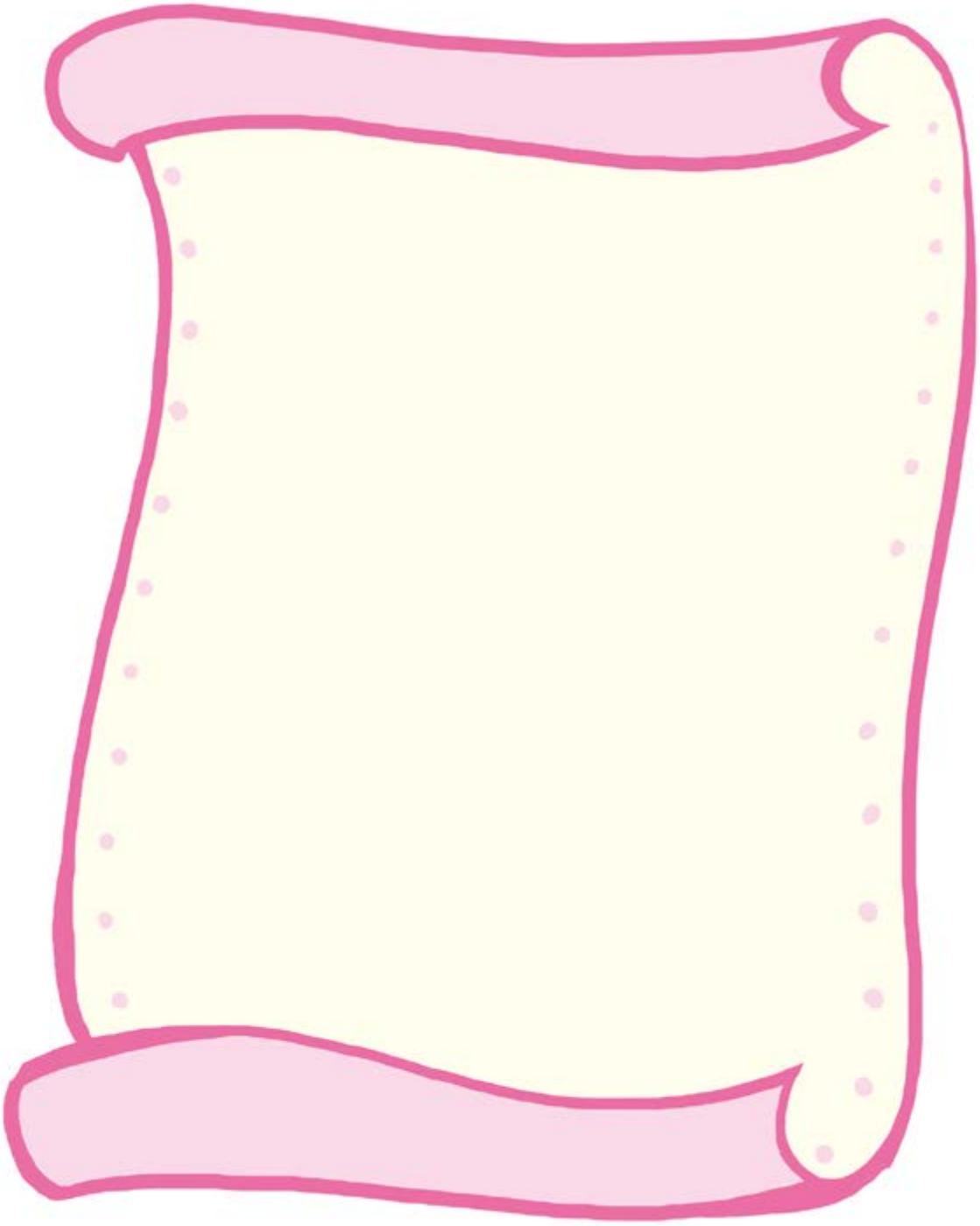
나의 기도

욕심을 버려요

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욕심내는 것을 싫어하세요.
내가 무언가에 욕심부렸던 일들이 있다면 종이에 적어 보세요.
다 적은 종이를 비닐봉지 안에 넣어서 펑 터뜨려요.

편지 쓰기

다음 편지지에 잘못을 뉘우치는 기도를 적어 보세요.
기도는 주님께 보내는 편지입니다.



선생님께

부모님께